

위원회 활동 소개

(1) 위원회명 : 정책 위원회

(2) 위원장 인사말

정책위원회는 우리회 회원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제도개선, 업역확대, 수익성제고등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위원회입니다. 외국의 경우와는 너무도 판이한 우리나라의 건축설계관행으로 건축구조분야에 충실히 그 임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회 회원들의 지위가 실추되고 있는 요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여러 전임 정책위원회 위원에서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회원들의 명예와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 위원회 구성 및 위원소개

[위원장 1인, 위원 4인]



- 위원장 : 윤병익 (주)아이스트엔지니어링 대표
- 위원 1 : 문종기 (주)에센엔지니어링 대표
- 위원 2 : 이준근 제일구조기술사사무소 소장
- 위원 3 : 한정만 (주)형상엔지니어링 설계1본부장
- 위원 4 : 이현동 (주)나래구조안전기술 대표

(4) 임기내 위원회 활동 목표

지금의 이사회는 이문곤회장님과 전임회장님의 공약과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정책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던 활동을 보다 세분화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법제도개선위원회등과 같은 여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활동을 지원하면서 그밖의 주요 활동으로 첫째, 우리회 회원의 권익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용역비의 최소단가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둘째, 회원의 안정을 해치는 장기미수금 회수방안을 세우고 셋째, 신기술, 신공법을 비롯하여 구조와 관련된 건설공법들을 정리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구조설계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 위원회 세부활동 내용

- ① 위원회 활동을 위해 월 2회 모임을 갖고 있으며, 장소는 주로 사무국이며, 때때로 맛있는 음식점 또는 각 위원들이 일하는 사무실로 그 때마다 적당히 정하고 있습니다.
- ② 우리 위원회에서 각 활동마다 이사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 우리위원회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며, 책임감있게 수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용역단가산정을 위해 한정만위원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매주 회의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나머지 위원들도 각자의 역할을 다해줌으로써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위원회는 장기미수금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공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회 회원의 구조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③ 건축구조기술사 최소용역단가 기준안
 - 정책위원회 회의(3회)를 통해 초안 작성
 - 회장단회의(2회)포함 주요관련위원의(총4회) 회의를 거쳐 의견 수렴 및 최종안작성

| | 벽식구조 (20층 이하) | 무량판구조 | RC/ST'L | 종교/문화시설 |
|------------|------------------|----------|----------|----------|
| 15,000평 이하 | 2,200원/평 | 3,000원/평 | 4,500원/평 | 6,500원/평 |
| ~30,000평 | 2,000원/평 | 2,800원/평 | 4,000원/평 | 6,000원/평 |
| ~60,000평 | 1,800원/평 | 2,500원/평 | 3,500원/평 | 5,200원/평 |
| ~90,000평 | 1,800원/평 | 2,500원/평 | 3,500원/평 | 5,200원/평 |
| 90,000평 초과 | 1,700원/평 | 2,500원/평 | 3,500원/평 | 5,200원/평 |

(6) 우리회를 위한 한마디

윤병익 위원장 : 그동안 최소용역단가를 정하기 위해 우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김승철부회장, 강창선부회장 그리고 이문근회장까지 모두 중요한 의견을 모으고 수렴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와같은 최소용역단가를 회원들이 지키기 위해 먼저 회원간의 친목도모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소외되는 회원이 없 이 모두가 참여하는 우리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길 바랍니다.

이현동 위원 : 우리 정책위원회는 회원의 권익신장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회가 구성되고 몇몇 정책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결실을 맺고 있기에 소속된 위원으로써 내심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린, 그간 현실성문제를 놓고 고민해 왔던 “최소용역단가 기준안”을 최종확정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회가 아무리 좋은정책, 공감하는정책을 수립한다 하여도 그 정책에 대한 최종적 결실은 그 정책의 수혜자인 회원들 개개인의 솔선수범하는 실천의지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위원회제정만으로 끝나는 용두사미식 정책이 안되려면 지금부터가 우리스스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